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1995년도 예배와 찬양대에 대한 지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참된 예배를 위한 당회장 신성종 목사 목회지침

우리 교회의 5대 목표중 첫번째는 '신령한 예배'이다. 당회장 신성종牧사는 지난 9월 정기당회에서 1995년도 목회방침을 발표하였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공예배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각별하다. 예배는 교회 존재 이유중의 하나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교회의 목표 중에 첫번째로 삼은 것을 보아도 그렇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을 해



▲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하여야 한다.

야 한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예배에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신령함으로 모두의 마음에 흐름들이 있게 된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를 신령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신령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 처소에서 활력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교회는 참된 예배, 신령한 이런 예배를 위해 여러가지로 애쓰고 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참된 예배를 위해 이런 맥락에서 1995년에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1. 예배 환경개선

1) 참석자들과 찬양대원들은 예배 시작 10분전에 참석하여 기도과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한다.

2) 예배분위기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누구든지 환영받는 분위기로 조성한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참석했을 때도 내집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3) 헌금위원회와 안내위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예배의 참석자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

4) 헌금위원을 고정화, 전문화 한다.

2. 주일저녁 찬양예배

1) 설교는 당회장이 강해설교를 한다.

2) 각종행사(졸업식, 수료식 등)은 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저녁 찬양예배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단, 당회중인 행사는 예외로 한다.)

3. 찬양대

1) 우수대원 확보 및 연습을 강화한다.

2) 지휘자, 반주자는 타교회 봉사를 지양한다.

3) 지휘자, 반주자 신규 임명시 이에대한 경력과 적절한 수준의 사람으로 한다.

4) 연간 설교제목에 맞는 곡을 선정하여 예배전체의 일체감을 갖도록 한다.

5) 오케스트라 대원의 임명을 당회인사 청원에 의거한다.

6) 제2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주일2부 예배를 섬기게 한다.

7) 각 찬양대마다 여자 부대장을 임명

예비신랑신부교육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명령인 결혼을 통하여 가정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본 교회 예비신랑신

부교육부(예신부, 부장 박인세 장로)에서는 내년 1월부터 8주과정(연중 6회)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주	과 목	내 용
1주	결혼 이해	성경적 결혼관 정립
2주	사랑 확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자 결정, 확인하는 법
3주	결혼 준비	혼수마련과 절제와식
4주	가족 사랑	배우자 가족들과 바른 관계맺기
5주	갈등 해소	결혼생활 중 발생하는 제 갈등과 해결법
6주	역할 분담	가정의 자제운영과 역할 분담의 지혜
7주	사랑 열매	경건한 성생활을 통한 부부관계
8주	자녀 양육	자녀 제육과 태교 출산

위 교육과정은 전문가 강의(1시간)와 반별 공부(1시간)로 진행되며, 수강 자격은 양가 부모의 허락을 득하고 결혼을 준비중인 남녀여야 한다. 12월 중에 등록을 받을 예정인데, 본 교회에서 결

혼식을 저행할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예신부는 현재 강사와 교사도 모집 중인데 관심있는 교우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문의: 장봉생 목사).

한다.

4. 기타사항

1) 영어예배도 영어권 목사로 전담 교역자를 청빙한다.

2) 새벽기도회 인도자를 선별하여 세운다.

3) 금요집회는 은혜와 말씀 중심으로 인도하고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참석토록 권장한다.

교구양육위원 새교구에 따라 재배치

새가족위원회 행정부에서는 급변에 교구가 23개 교구에서 13개 교구로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새가족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양육위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새가족 양육기록카드와 양육일지를 전체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모든 교구양육위원들은 12월 11일(주일)까지 해당 서류를 새가족위원회 행정부 사무실에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분류된 새가족들은 개편된 교구에 따라 재배정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한 각 교구양육위원 반장모임은 10월 30일(수) 오후 1시에 칼빈홀에서 모인다.

일일 부흥회

12월 4일 저녁, 강사 최병남 목사

교회는 12월 4일 저녁 찬양예배를 일일 부흥회로 모이기로 했다.

강사는 대전중앙교회의 당회장인 최병남 목사이며 대전중앙교회의 시온찬양대가 특별찬양순서를 갖기도 한다.

충현북방선교 세미나

12월 4일, 강사에 한완상 장로

선교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올해의 선교사업을 결산하면서 우리 교회 선교의 중심 주제의 하나인 북방선교를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1994년 하반기 충현북방선교세미나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제약조건을 바라보면서 세계선교를 협력하시며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든 성도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도전과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일시 : 1994년 12월 4일(주일)
오후 2:30-4:00 (교구연합 모임후 곧 이어 개최)
2. 장소 : 갈릴리움
3. 강사 : 한완상 장로
(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4. 주제 : "21세기를 향한 북방선교의 방향"

세 상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장차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누구도 뵈 수 없었던 인봉된 책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개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만고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비밀을 말할 만한 자격이 없는 비천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움과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과 비밀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1. 인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6절)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어린 양은 어린이라는 말과 양이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것은 한 단어입니다. 원문의 어린 양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양의 새끼가 아니라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완전무결한 속죄제물이라는 뜻으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첫째로 어린 양의 위치는 사이에 서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일곱 개의 뿔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고 전능하심에 대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눈이 일곱이라고 했는데 눈은 보는 것입니다. 눈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일곱 눈이란 예수님은 작은 일 큰일 할 것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완전하신 영, 일곱 가지 성품을 가지신 성령님을 뜻합니다.

셋째로 어린 양이 인봉된 책을 취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7절) 4절에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인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음을 보며 진리를 알려는 갈급한 심정으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울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마치 어린애가 웅아 하고 울면 부모가 알아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먹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고 울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2. 책을 취한 결과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아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8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천군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한 때나(욥 38:7),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을 했을 때(눅 2:13), 그리고 성도들이 인치심을 받아 거듭나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천군천사들의 찬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계 7:11,12).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받을 때 천군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라고 했습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엎드린다는 말은 겸손을 뜻하는 말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각각 거문고와라고 했듯이 이들은 그냥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 거문고를 타면서 경배했습니다. 거문고는 원문에 보면 하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말로는 수금이라고 번역해야 더 옳은 번역입니다.

충현강단



인봉된 책 (2)

(계 5:6-14)



신성종

<목사·당회장>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라고 했습니다. 금대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했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보다도 거문고, 즉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또한 성도의 기도들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주목할 것은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즉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하는 대표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로 전달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3. 새 노래로 찬양함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이십 사 장로들과 네 생물은 새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최근 작곡된 노래가 아니라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 마음은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즉 찬양은 성악가가 아니라 거듭난 자가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첫째 9절과 10절에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뵈 수 없는 인봉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

수님께서 책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시고 계시하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본래 우리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생명과 바꾸고 교환한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셋째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과 왕, 즉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같은 왕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하여 우리가 대통령이 안되어도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듯이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부패되

어가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천사와 만물의 노래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11절). 천국의 찬양대원들의 숫자가 천천이요 만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찬양대원들의 숫자가 천천이요 만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했습니다(12절). 찬송의 내용은 주님께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합당합니까? 여기에 일곱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뿐이신데 우리가 자꾸 앓고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이다"라고 했습니다(13절). 이번에는 온 우주의 찬양입니다. 보세요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 온 우주 만물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이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아까는 일곱가지였고 지금은 네 가지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곱 가지는 완전한 것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얘기이고, 네 가지라는 것은 항상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찬송에는 '합당하도다' 그랬는데 이번 찬송에는 '돌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영광도 찬송도 존귀도 다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고 했습니다(14절). 왜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만유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늘 애기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한 부분이라도 받거나 차지하면 안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만고의 비밀을 계시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충성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에바다부 6주년 기념 수화찬양제를 보고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이들오미라
(청년1부, 초등1부 교사)

11월 20일, 추수감사절 주일은 나에게 특별한 감사가 있는 주일이였다. 에바다부 개교 6주년 기념수화찬양제에 대한 광고를 보며 꼭 한번 가 보리라 다짐했었는데 조금 지각을 했지만 함께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날이었다.

수화찬양제는 여러 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했다. 에바다부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교회 농아인 교회학교는 연령층이 다양해서 그 안에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로 나누어 교육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과 교사들이 에바다부의 예배 모습을 연극으로 펼쳐면서 수화찬양제는 시작됐다. 수화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OHP로 대사가 나왔다. “다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 농아인들은 눈을 뜨고 기도를 드리겠구나. 수화를 보면서 마음을 합쳐 기도 드리겠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찬양을 성인반에서 드렸다. 아무 소리가 없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 속에 마음을 담아 그 찬양의 가사와 똑같은 마음으로 부른다는 것이 가슴으로 와 닿았다. 비록 농아인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애통해

할 줄 아는 그들이 참으로 눈을 뜬 자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 소경이 누구인가? 앞 못보는 자들인가? 아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소경 아닌가라는 송명희 시인의 시구가 떠오른다. 보고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무덤덤한 우리들이 아니, 내가 장애인인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람의 언어와 문자는 각기 나라마다 다르지만 수화, 몸으로 하는 언어는 나라마다 다 통한다고 한다. 언어가 문자화되지 못한 곳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또한 우리 북한에 있는 농아인들을 위해 통일된 그날을 준비하며 에바다부 회원들은 배우고 익히고 자란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쫄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잔잔한 감동과 함께 다음 순서들이 이어졌다. 그 다음 순서는 성인반 형제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연극이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싶어 이 연극을 준비했다고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싶어서... 그들은 그들이 조금 가진 것 그 조금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 많이 가진 자들은 그 많은 것 중에 조금조차도 줄 생각을 얹는데... 그들이 진정 풍성한 삶을 사는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들의 수고가 매우 크다는 생

각이든다. 에바다부 모든 선생님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1년간 수화를 배우고 나서야 에바다부에서 봉사한다고 하신다. 보통 교사님들보다 준비시간이 훨씬 길다. 선생님들의 수화 찬양 모습은 힘이 있었고 아름다웠고 감동이 있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려 하기 위함이라”(요 9:3)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깨우치려 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에바다부가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에바다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외롭게 지낸 농아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끝나고 나오는 데 작은 기념품까지 주셨다. 받는 손이 부끄러웠다. “축! 에바다부 6주년 기념 수화 찬양제”라고 예쁘게 쓰여진...

추수감사절에 본 수화찬양제. 그들이야말로 진정 감사하는, 참으로 찬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 수화찬양을 하는 모습. 소리없는 찬양,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마음과 드림이 있다.
▼ 에바다부 회원과 교사들, 학부모들, 관심있는 자들이 모여 수화찬양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맞보았다. 모든 시간을 마친 에바다부 식구



소망부 개교20주년

1975년, 그러니까 20년전 한국교회로서는 처음으로 교회학교 소망부가 출범 했다. 소망부에서는 지난 주일(11월 20일), 소망부개교 20주년을 맞으며 기념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시간에는 소망부의 20년간의 연혁보고와 장수상, 공로상, 특별상을 시상하기도 했고,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특별 순서와 크로마하프 연주단의 특별연주, 역대 부장, 부감, 교역자들의 특송도 있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모인 소망부에게 소망부는 교회를 위해 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글자 그대로 소망이 넘치는 곳이었다.



편집실로 온 편지

저는 주간충현지를 받으면
밤새워가며 읽고 또 읽고
다른 분들까지 돌려가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출판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7년 5월 이민와서 사는 장일숙 권사입니다. 그때는 7교구 중화구역 부지역장으로서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모 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님,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의 여러 부교역자와 당회원과 제직, 교회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간충현, 주간충현을 항상 보내 주셔서 얼마나 은혜받고 성경공부도 하며 매일 말씀도 묵상하는지요. 저는 주간충현지를 받으면 밤새워가며 읽고 또 읽고 다른 분들까지 돌려가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사랑 큰잔치 간증 등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나 글들이 기록된 것을 보면 정말 반갑고 기쁘답니다.

부족하나 밤새워가며 성경공부를 해서 보내오니 점수도 채점해주세요. 충현교회 부흥과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산호세 베다니장로교회

토막소식

◆ 찬양위원회(위원장 김은호 장로)에서는 II부 예배시에도 찬양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기 위하여 II부 예배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 단원 자격은 관현악 전공자로 세레 교인이어야 하며 학생도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11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입단원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다.

찬양위원회는 성탄축하 '메시야' 연

충현실업인선교회 월례회 및 특강

11월29일, 강사 김영대 목사

충현실업인 선교회(회장 남선우 장로)는 12월 월례회를 오는 11월 29일(화)에 개최한다. 자영업 및 기업체 중견간부 이상의 모임인 실업인 선교회는 매월 한번씩 모여 기업체에 대한 정보교환, 성경공부, 기도회 등을 통해 교제를 나누며 자신이 소속된 직장 복음화를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오고 있다.

12월 월례회는 중동회교인 파송 선교사인 김영대 목사가 '축복받는 기독교실업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

- 일시 : 11월29일 오후 6~7시 만나홀에서 식사와 친교
오후 7~9시 베다니홀에서 월례회 및 특강
- 장소 : 만나홀과 베다니홀

합찬양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와 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 오후 6시부터 각 파트별 연습과 전체 찬양연습 등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12월 23일(금)에 연주할 예정이다.

◆ 중등1부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범위는 교과책 27과 이후.

◆ 중등2부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범위는 사도행전이고 각 부서별로 진행된다.

고입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초청기도회

중등3부, 오늘 중등3부실에서

교회학교 중등3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12시 20분까지 교육관 507호 중등3부 예배실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의뢰하는 일과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또 다른 세계를 향하는 준비를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를 초청하여 기도회를 실시한다. 말씀과 인도에는 중등3부 지도인 정광욱 목사가이다.

◆ 청년2부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회원들의 경조사를 미리 알리어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 고등부는 지난 주일 김영길 박사를 강사로 '과학과 하나님'이란 제목의 특강을 고3학생을 중심으로 들었다. 또한 저녁 찬양예배 후에는 대입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 기도회에서 당회장 신성중 목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했다. 기도시간에는 교회 내의 모든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 김창인 목사 : 특별히 건강과 능력과 크신 은혜로 날마다 지켜 주시며 평안히 귀국케 하옵소서.
· 신성중 목사 : 11월 30일(수) 한양 기독교실업인회 특강, 12월 2일(금) 세계선교 협의회 중국선교 협의회 창립예배 설교
2.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선교하는 일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 기독교 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금요찬양집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3.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주일 성수와 기도생활에 열심하며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시며 온 가족이 믿게 하옵소서.
4.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5. 김영삼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때를 분별하게 하셔서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손명순 권사님이 에스더와 같은 신앙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부목사들이 수험생이나 수험생대신 참석 한 학부모를 위해 일일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험생과 학부모, 관계된 사람 600여명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기도회가 되었다.

◆ 대학부는 내년도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에 메추라기홀에서 '열린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 청년1부는 매주일 찬양예배 후 임원, 스텝, 조장, 신입부 리더의 사역자 기도회로, 수요일예배 후에는 전체 기도회로

모여 기도에 열심하고 있다.

◆ 장년3부는 12월 4일 이사야서 전 장과 로마서 1~6장을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열며, 11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를 제3차 부흥기간으로 잡고 기도로 준비하여 60대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다.

◆ 사랑부는 95학년도 사랑부에서 봉사할 교사님들을 찾고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또한 차량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다.

수리남 / 안석렬 선교사

수리남 선교를 시작한지 4년반만에
첫번째 세례식과 함께 성찬식을
배풀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안석렬을 마치고 무사히 수리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대신하여 수고하시던 김창수 목사 가정을 한국 충현교회로 보내드리고 긴 기간동안 다시 적응하느라고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선교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무사히 수리남에 재입국하였고 7월 12일에 수리남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오래 걸리기로 소문난 체류허가를 신청하고 8월 26일에 경찰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9월 28일에 사무실로 서류를 보냈다고 하여 10월 26일에 가보았지만 아직 경찰서에서 안넘어왔다고 합니다. 속히 수속이 끝나 체류허가를 받도록 개도를 부탁드립니다. 노동허가는 6주 걸린다는 것이 용지가 없는 이유로 12주만에 나와 사무실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7월 26일부터 대심방을 시작했습니다. 8월 11일 아들 요한이를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American Cooperative School에 등록시키고 8월 22일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어가 서툴고 이해가

부족하지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성경공부(장년)를 시작하여 3명이 꾸준히 나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6일까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실시하여 89명, 113명, 106명, 107명이 출석하였는데 주제는 '목자되신 하나님' (시 23:1)이었습니다.

수리남 선교를 시작한지 4년반만에 첫번째 세례식과 함께 성찬식을 배풀었습니다.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3명(Ricardo, Sabrina, Ganeshram)이 세례를 받았으며 모두 9명이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한인교회는 세례 3명, 학습 1명, 수찬 17명입니다. 현지인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원했지만 정식 결혼을 하고 동거하는 이유로 세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의 가정문제가 해결되고 세례받고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와 함께 정치도 혼란한 가운데 있는 수리남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김창수 목사의 설교를 번역 통역하던 Rita가 남편 Hendrik이 일하는 교회에 전임으로 일하게 되어 10월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정문제로

갈등이 생겨 Hendrik이 병원에 입원하는 불상사가 생겨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한 차례 병원에 방문도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Rita가 떠난 자리를 베스가 잘 다리지

않아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Susan(중학교 영어교사)과 Diana 그리고 이번에 세례를 받은 Sabrina가 협력하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Sabrina는 그동안 일하던 한국식당을 그만두어서 매주 화, 수, 목, 금 오전 9시~1시까지 교회 사무와 행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두고 온 소영이와 위영이는 형님 내외분(안석렬 집사, 윤정애 집사)과 친척들 그리고 한인선교교회의 사랑을 받으며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도 이곳에 와서 웬만큼 공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대 건기라 많은 병들이 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건강한 편입니다.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에 성탄 선물을 보냅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연말과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보낼 성탄 선물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헌금 등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사님 및 그 가족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각부서, 기관, 교구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1994년 11월 27일(주일) 17:00까지
- 접수시간 : 매일 오전 9:00 - 오후 6:00
- 접수장소 : 사무국 (충무관)
- 접수종류 : 성탄선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헌금 기타.
(받으실 선교사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선교위원회 사무실 (TEL 552-8200) (교) 356-8번)